

자기 잊음

1314. 관상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데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서도 안되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관상자는 자기의 시야를 초월하여 멀리 바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막과 광야, 초원 그리고 온 세상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 무한한 지평선, 광활한 평원, 끝없이 펼쳐진 고원, 끝없는 바다가신 하느님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관상에 몰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꽃 같은 그의 시선,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해 지어진 그의 시선, 그 풍요로움이 조잡함으로 변해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1315. 하느님은 자신을 잊은 영혼을 원하십니다. 자신을 땅바닥에 던져 버린 채, 자기가 살아있는지조차 잊고 사는 영혼을 찾으십니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자신의 기쁨과 메마름 따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밖에 모르고 아니면 적어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영혼입니다.

1316. 이 한정된 시간 속을 살아가는 관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불꽃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상자는 자신이 불가마 속에 살라지도록 스스로를 내어 놓습니다. 참으로 장하고도 아름다운 사명, 동시에 메마르고도 힘겨운 사명입니다.

불꽃이 사랑의 맛에 대해 알겠습니까? 사랑은 맛보는데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 열기를 식힐 물도 없고 그 목마름을 진정시킬 샘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킬 듯이 태워버리는 그 상처의 아름다움은 오직 영원으로부터 바라볼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 사는 동안은 아무도 그 아름다움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 살고 있는 이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런 위안도 찾지 마십시오. 아무 것도 찾지 마십시오.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그냥 사십시오.

1317. 낙천가가 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잘것없는 우리 일에 바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 생각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 생각을 오로지 그분께로 집중시킵시다.

1318. 무한하신 하느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끝없는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버려갈 때에 비로소 영혼 안에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1319. 하느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신비 안에 잠자코 머무십시오.

그대를 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대가 죽어야 한다면 죽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의 손아래 죽으십시오.
하느님의 능력 아래 죽으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하느님의 눈길 아래 죽으십시오.

1320. 이제 정말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열등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하잘것없는 우리의 문제들에 매달려 있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일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1321. 감정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신비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는 강인한 의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빛으로 지성을 밝히고 의지로 그 빛을 따라가고 그런 다음 마음을 채우십시오.

1322. 죽음? 그분이 생명이시라면 죽음인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산산 조각 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그분께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힘이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승리자시요 사랑에 패배 당하신 분입니다. 그대는 그분의 표적물... 그분께서 겨냥하신 사랑에 빠진 표적물입니다.

1323. 교회는 자기를 잊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호소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필요한 군단입니다. 성인들의 군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자원군들입니다.

1324 모든 이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요구 앞에 문을 닫아 버리

면 머지 않아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정상에까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1325. 제가 발견한 비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 인격의 성숙도는 그가 자신의 문제들에는 무관심해지고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능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섞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에 기꺼이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을 때, 자기 일을 잊어가며 남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몽땅 쏟아 부을 줄 알 때, 비로소 그에게 사랑의 능력, 자기 헌신의 능력, 세상 전체를 포용하는 능력, 넓은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폭넓은 차원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자신 안에 몽땅 소모해 버립니다.

1326. 자신에게서 벗어난 그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사랑을 향해 미칠 듯이 투신하십시오.

풍량이 일면 즉시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압니다. 사랑 외에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1327.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많이 생각하면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모든 이의 것이라면.....사랑에 빠진 영혼이 될 것입니다.

1328. 우리의 살아 계신 그리스도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영적인 일들에서조차 나 자신을 잃어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오직 완전한 자기 잊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일치와 통합이 가능하게 하고 형제들과의 일치도 이루어냅니다.

1329. 바위틈에 숨어사는 영혼은 낮아지고 작아진 영혼입니다. 하느님은 강렬한 신적 삶을 살도록 영혼을 부르시고 거기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영혼은 낮아지고 작아져야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로 자신을 고집하며 나를 잔뜩 짊어진 채 그 틈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짐 없이, 부피 없이 개인적인 번잡스러움 없이 가야 합니다.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는 세가지 상반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무한히 풍요로워지기 위해 겉으로 보기에 가난해지는 것이요, 하느님 안에 잠기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하강의 신비이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얻기 위해 가난한 나의 인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330. 그대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날아가십시오. 자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가벼워지십시오. 그대에게도 교회에게도 짐이 되지 마십시오. 짐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가볍게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때가 왔습니다.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하십시오.

1331.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코 바라보지 않는 것이 영원의 신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332. 영혼이 높이 날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 자기를 잊고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밝히는 살아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1333. 우리 자신을 재지 않을 때, 무엇보다 골고타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 것들은 정말 하찮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1334. 우리의 근심 걱정들을 “돌보지 않는 백합들”(십자가의 요한, 어둔밤 8) 사이에 던져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로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그 영적인 것들이 슬프게도 우리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꿈은 크지만 힘에 부치고 꿈은 찬란하지만 현실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1335. 언제나 하느님 뜻의 신비스런 혈관을 찾으십시오. 그 대혈관을 찌르십시오. 다른 것들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1336. 만약 그대에게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눈을 하느님께 영원히 고정시킬 수 있다면.....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십시오. 감정에 끌려 다니지 말고 그것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똑바로 아주 똑바로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음? 깨어짐? 부서짐? 이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1337. 초라한 우리 물방울이 하느님의 격류에 휘말리고 희미한 우리 빛이 찬란한 그분의 빛 속에 흡수되어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잊게 되고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 뒤에 생명이 따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것들”은 하느님의 신비 저편으로 결정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338. 우리 시야에서 우리가 사라져 버리는 날, 땅에서는 영광의 찬미가가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그를 찾지 마십시오, 이제 그는 여기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느님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1339. 그들은 생명을 걸고 모험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걸겠습니까?

그대 자애심을 송두리째 걸어 모험하십시오. 그 자애심을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 바다 깊은 심연으로 던져 버리십시오.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느님,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 그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리고 실제로 다다르리라

는 증거를 보여 주십시오. 확실한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신을 생각지 마십시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1340. 우리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데서 또 뭔가를 떼어내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관대한 포기를 아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으로 흡수된 물방울은 하느님의 차원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아끼고 자기 생각만 하는 물방울은 결코 물방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마시도록 그분께 열어드립시다.

1341. 하느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좋은 선택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1342. 제 영혼의 심각한 걱정거리 하나를 여기 털어놓을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교만으로 변해 버린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두렵고 몸서리 쳐집니다.

1343. 울부짖는 사자처럼 제 존재 깊은 곳에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소서. 저는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당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 왜 저는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문제라고만 생각하는지요? 예수님, 어찌하여 당신의

말씀이 제 영혼을 사랑으로 부서뜨리지 못하는지요? 또 제 삶이 무너지지 않는지요? 어찌하여 아직도 이토록 팔팔하게 살아있으면서 언제나 오직 당신께 대해 묻는 대신 저 자신에 대해 물어 보고 있는지요?

1344. 우리 사막의 여정은 하느님 사랑에 빠진 여정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영혼들, 하느님으로 불붙은 영혼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신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영혼들, 그들의 손길이 닿으면 불이 붙고, 바라보면 미소 지으며, 미소 지으면 하느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영혼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호도 나무이건, 소나무이건 똑같이 태워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타들어 가기 시작하면 모두 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목이 아니라 태우는 불입니다.

그대의 재목을 바라보지 말고 그대에게 성큼 다가오는 그 불을 바라보십시오. 이 불이 그대의 생명입니다. 누군가 그 불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버려둔다면, 그는 그분의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1345. 사랑의 불꽃은 타오르는 용광로입니다. 불꽃은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는 그 장관을 바라보며 감탄하지만 불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를 지켜보고 알아보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완전히 무지합니다.

1346. 우리 자신을 잊어버립시다. 우리의 잡동사니들과 작은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교회의 무한한 지평선에 우리를 활짝 엮시다..

우리 희생과 승리에 대한 권리를 세상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내어줍시다.

1347.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과 성교회와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발치에 그대의 삶을 산산이 깨뜨려 버리십시오.

1348. "다른 이들이 밟고 지나가고 잊혀지는 길이 되십시오."

길은 밟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짓밟힘의 행복을 느낍니다. 사실 밟히면 밟힐수록 그대 사명을 더 잘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되십시오.

1349. 정말로 일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올라가십시오. 자기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며 올라갑니다. 모든 이를 섬기며 올라갑니다. 언제나, 항상 미소 지으며 올라갑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올라가게 하십시오!

1350. 하느님은 그대 존재의 가장 내밀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대를 온전히 당신 것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그대 마음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그분께 열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들어가시고 그대는 서서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스타일 안으로, 그분의 신비로운 몸짓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대의 행동 방식과 스타일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합

니다.

1351.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분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신비는 이렇게 철저하고 근본적입니다.

1352. 자기 망각의 길에 발을 들여놓을 때 비로소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하느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1353. 주님,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당신의 활동 영역을 가로채지 않도록 저를 비워 주십시오.

1354. 주방에 있거나, 수틀 앞에 있거나.....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사람의 발이 닿아 본적 없는 정글 속을 다니며 하느님을 선포하거나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 없는 창가에 홀로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거나... 무슨 상관입니까?

아! 정말 중요한 것, 참으로 유익하고 풍요로운 것은 내 시야로부터 나를 잃어버리는 것, 나에게 대해 알지 못하고, 내 성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355. 그대의 삶을 비우십시오. 어떻게? 그대 자신에게서 나오십시오.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그대의 걱정에도전하십시오.

1356. 자신의 '나무'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자신을 잊어버

리십시오.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까? 관심조차 가지지 마십시오.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까?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지나가는 이들이 용단처럼 밟고 지나가게 버려두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자신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시간과 생각, 생명과 에너지를 호소하시는 그 "누군가"가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1357. 기쁨, 진실, 사랑과 일치를 심으며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일 밖에 다른 걱정은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심으며 자기를 잊고 사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358. 완전한 자기 이탈 안에 온전한 충만함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비어 있을 때 채워 주십니다. 그분께서 채워주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1359. 모든 이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모든 이의 땅, 모든 이에게 속하고 나에게는 속죄 제물이 되는 것 밖에 다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모든 이의 땅.

모두를 위한 위안과 휴식의 땅이 되십시오.

1360.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잊으십시오. 그대의 기억을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로 바치십시오. 그리고 그 백지 위에 사랑과 불, 신적인 숨결로 채워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대 삶의 순간 순간이 그대를 불사르고, 태우고 창조하는 그 거룩한 손길에 의해 엮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잘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대의 가난함을 비추고 아름답게 꾸며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시니 그대의 가난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위대함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점령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1361. 하느님의 고요 속에 자신을 잊으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평화 속에, 그분의 침묵 안에 살며 고요함을 잃지 마십시오.

1362. 그대는 세상을 비추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망각을 수반합니다. 빛을 밝히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생각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대의 사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363. 어머니와 아드님 두 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숨으십시오. 그대의 삶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러나 동시에 감지되는 그 가파른 바위의 신비 속에 숨어, 침묵 속에 호흡하십시오.

1364. 요새 안에서 죽읍시다. 자신에 대해 알려 하지 말고 하느님의 무한하심 안에 우리를 잃어버립시다.

1365. 그대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 기뻐서 사랑과 행복에 겨워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달아 들

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살아 계신 나의 그리스도! 내 영혼의 부르짖음, 나의 힘, 나의 모든 것이여!

그분이 되십시오. 그분으로 탈바꿈한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대를 그분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 오직 그분이 되십시오.

1366. 멀리, 저 멀리 사라져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게 되기를.... 혹 찾게 된다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기를... 그러다 결국 알아보게 된다면 이제 나의 모습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보게 되기를! 나는 모든 이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내 고유의 모습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고유의 모습을 잃어 버릴 때 얻게 되는 위대한 특징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가 기뻐하는 것에 나도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모두가 바라는 대로 나를 내어주었으며 나의 기호조차 잃어버린 채 다 내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나는 빈털털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의 모습은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나의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이에게 나를 내어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줄 때 얻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367.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잊습니다. 만일 잊지 못한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허름한 옷, 가난한 음식, 불편함 등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대 등지 안에 쌓인 먼지에 마음을 쓰지 말고 하느님의 아름다

움을 바라 보십시오.